



혁신도시서 4차산업 미래 본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개소

VR 등 체험형 콘텐츠 개발

시험 장비 31종·체험존 갖춰

전남지역 최초로 가상현실 체험 등 게임산업을 육성해나갈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지난 27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남실시간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전남실시간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물 3층과 4층에 터를 잡았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육성에 나선다. 특히, 실제 게임 속 현장에 들어간 듯한 몰입도가 높은 게임을 일컫는 ‘체험형 커넥티드 게임’ 개발과 인재육성, 시장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게임센터에는 게임관련 입주기업이 등지를 틀 기업입주실 8곳과 창업보육실 4곳이 마련돼 있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또 입주기업이 개발한 게임콘텐츠의 품질과 성능 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테스트 베드실’에는 안경형태로 착용하면 가상현실이 눈에 보이는 HMD기기 15종과 모션트래킹 3종, 컨트롤러 1종을 포함해 총 31종의 장비가 구축돼 있다.

‘테스트 베드실’은 진흥원의 지원을 받

아 개발된 신규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도 함께 구축돼 있다. 100인치 이상 대형화면이 벽면에 빔프로젝트 영상으로 출력, 터치스크린이 가능하게 개발해 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게임 ‘KI-KI Ball’ 등 4개의 체험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시장에 진출하기 전 오류를 검증하는 테스트는 물론, 이용자가 직접 체험해본 뒤 반응을 확인해 출시 후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다. 중화권과 동남아권 진출을 목표로 현지화를 위한 음성번역 지원 등도 이곳에서 시험을 거치며 이뤄질 예정이다.

게임센터는 체험형게임 시장 개척과 저변 확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

하고 있다. 문화·관광행사에서 지역기업이 개발한 게임 등을 소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전시회, 박람회, 상담회 등 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글로벌게임센터 개소를 통해 전남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뛰어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게임센터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전남 등 전국 7개 시·도에 설립되고 있다. 지역별 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해 수도권에 편중된 게임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목적이다. /박기웅기자 pboxer@

세계 최초 자율주행 레이싱카

운전석 없는 ‘로보카’ MWC서 첫선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레이싱카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베일을 벗었다.

운전자 없는 모터스포츠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려 하는 로보레이스는 지난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로보카’(Robocar·사진)를 공개했다.

이 차의 외형은 사람이 타는 공간이 없고, 차체 가운데는 좁은 뼈대만 있다. ‘트론:새로운 시작’의 라이트 사이클(light cycle)을 비롯해 ‘오블리비언’, ‘프로메테우스’ 등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차량을 만들었던 대니얼 사이먼이 디자인했다. 그는 부가티와 폴크스바겐 디자이너 출신이다.

로보카 무게 975kg에 길이 5m, 폭 2m다. 높이는 어른 무릎을 겨우 넘을 정도로 낮다.

이 차의 두뇌는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용 칩인 드라이브 PX2로, 초당 24조 건의 인공지능(AI) 활동이 가능하다. 센서에는 라이다(LiDAR) 5개, 레이더 2개, 카메라 6대 등이 들어갔다. 전기차인 이 차에는 300kW 모터 4개가 달렸고, 최고시속은 320km다. 로보레이스는 이달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전기차 경주대회 포클라 E의 부대행사로 시험차량 데모 2대를 출전시킨 비공식 레이싱을 개최했다.

2대 가운데 1대는 최고 시속 186km를



기록하고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다른 1대는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돌다 벽에 충돌했다. 개 1마리가 경주로에 나타난 돌발상황도 있었지만, 차량이 속도

를 늦추고 방향을 바꿔 무사히 피해갔다. 로보레이스는 10개 팀을 출전시켜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팀마다 다른 소프트웨어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연합뉴스

인공위성이 담아낸 지구의 아름다움

7일부터 광주과학관 특별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오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우주과학기술 특별전 ‘우주의 물·위성에서 바라 본 지구’를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인공위성 기술이 인류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지구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프랑스 툴루즈과학관과 프랑스항공우주과학관에서 지구의 물과 위성에서 관찰한 물과 대기의 변화 등 영상콘텐츠 5점을 후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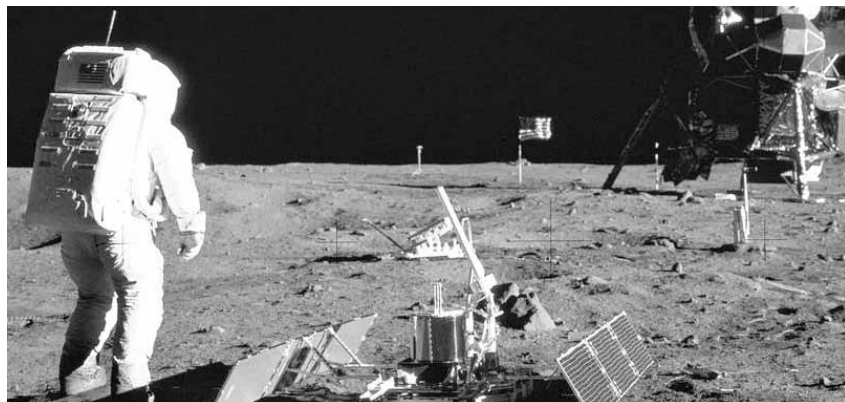
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는 국내 인공위성 사진 등 전시자료를 지원받았다.

광주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주관련 전시물과 프랑스대사관이 마련한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됐다.

특별전은 광주과학관 입장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프랑스대사관과 함께하는 ‘프렌치데이’ 행사도 열린다. 프랑스 과학기술에 관한 강연과 관련 영화상영들이 진행된다.

문경주 광주과학관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선원이 달에 첫 발걸음을 내딛 모습. (NASA 홈페이지)

경매로 산 ‘달 흙먼지’ 개인 소유권 인정

아폴로 11호 채취 표본

美 법원 판결…NASA 패소

미국의 유인 달탐사선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서 채취한 흙먼지 표본이 소송 끝에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개인에게 넘겨졌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원은 지난 28일 NASA 우주계획 총괄본부인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 측에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달 착륙 시 채취한 흙먼지 표본 주머니를 시카고 교외도시 주민 낸시 리 칼슨(65)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흙먼지가 든 약 30cm 길이 흰색 주머니는 칼슨이 2015년 연방정부 경매에서 995달러(약 110만원)를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존슨 우주센터에 보관돼왔다.

미 당국은 이 물건을 “국가적 보물”로 주장하면서 “행정부처의 착오로 경매에 올려져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칼슨이 흙먼지가 든 주머니의 주인”이라며 반환을 명령했다.

아폴로 11호 선원들은 발사 8일 만인 1969년 7월 24일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상으로 귀환하면서 특수 고안된 주머니에 달 표면 흙먼지와 돌 조각 등을 담아

왔다. 칼슨이 사들인 주머니도 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주머니는 2006년 제3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수사당국이 캔자스 우주박물관 관장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미 법무부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4년 이 주머니를 압수물품 경매에 최저 입찰가 2만 달러(2300만원)를 매겨 내놓았으나 유찰, 2015년 2월 다시 경매에 부쳐 칼슨에게 팔렸다.

칼슨은 흙먼지 주머니를 손에 넣은 지 수개월 후 존슨 우주센터의 달 표본 큐레이터 라이언 지글러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요청에 따라 우주센터로 주머니를 보냈다.

지글러는 “주머니 속에 든 것이 달의 흙먼지일 뿐 아니라 주머니 겉에도 같은 흙먼지가 묻어있다”는 답을 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주머니는 되돌려받을 수 없었고 소송을 제기했다.

NASA 측은 “결코 개인 소유할 수 없는 역사적 유물이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칼슨에게 팔린 것”이라며 “과학적 가치 면에서 중요한 뿐 아니라, 한 시대 국가적 차원에서 쏟은 노력의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이어 칼슨에게 “달 흙먼지 주머니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평가 21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평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재스트하우스 낙안읍성인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평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평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북서측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평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평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옥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형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1~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적합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합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접)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층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